

이렇게 삼촌을 마주하는 건 거의 3년 만의 일이다. 내가 YJ에 입사한 이후 처음 보는 것이니, 아마 그즈음 됐을 것이다.

비록 면회실의 유리벽 너머였지만 하나뿐인 혈육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다. 오랜만인 삼촌보다 삼촌의 맨얼굴은 더욱 오랜만이다. 그날 이후로 삼촌은 덩수룩한 수염과 머리카락 뒤로 숨어버렸으니까. 그동안 그 무성한 털에 가려 있고 있었지만 삼촌은 역시 나와 닮았다. 간헐적으로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이는 것이나 입에서 침이 새는 것은 여전해 보였으나, 그 두 눈만은 내 기억 속의 것이다.

“삼촌, 안녕. 내가 입소하고 나니 삼촌 얼굴이 쫘네.”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보이고 싶진 않았다. 이미 죄수복을 걸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삼촌의 가슴에 못을 박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삼촌은 애당초 내 처지는 관심도 없다는 얼굴이었다. 지금 삼촌과 마주 앉아있는 것은 나였지만, 삼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교도소의 면회실 따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애들은, 무사히 돌아갔니?”

스스로를 깡촌 시골에 유배시키고 미치광이가 되어 반평생을 보낸 삼촌. 그런 삼촌이 나를 찾은 이유는 뻔했다. 그에겐 제 손으로 직접 이루지 못한 과거의 업이 있었다.

“몰라. 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 나머진 바다가 그 애들을 잘 이끌어 주었으리라 믿는 것뿐이지.”

삼촌이 이루지 못한 업은 오랜 시간 들고 돌아 나에게로 왔다. 딱히 그 낡은 숙업이 나의 몫이라고 여겼던 적은 없었으나, 삼촌과 같은 것을 짊어지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우리의 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일지도 몰랐다.

“넌, 후회하지 않니?”

그 결과가 이랬다. 삼촌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빼앗겼고 광인으로 살았다. 나는 아마 그보다 오랜 시간 죄수복을 걸치고 수갑에 묶인 채 살아야 할 것이다. 감옥 안은 이미 YJ에 매수당한 사람이 득실대니 남은 투옥 생활

이 편할 것 같지는 않았다. 출소 후에도 국내 굴지의 기업에 반기를 든 죄로 평탄한 삶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았다. 그래서 후회하느냐고?

“아주아주 많이.”

물론 후회했다. 어리석고 멍청해서 있지도 않은 구원을 찾아 목을 매었던 나. 부끄럽고 아까운 그 시간을 생각하면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진작에 이 멍청한 미련을 떨쳤어야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정말로 원했던 걸 깨닫지 못하고 낭비해버린 내 어린 날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는 웃었다. 웃을 수 있기에 웃었다. 역시 삼촌과 나의 다른 점은 여기서 부터였다. 삼촌은 가족을 저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해버렸다. 꿈, 명예 그리고 미래. 그 전부를. 나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갈잡은 몽상에 취해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눈 돌리는 일 없이 세상을 좀 더 똑바로 바라봤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살만한 곳이였을까?”

삼촌은 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실패자가 성공한 사람에게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삼촌도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은 소위 말하는 천재였다. 어렸을 적부터 소문이 자자해 국내외 유명 교수들이 앞다투어 삼촌을 데려가려 할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로 삼촌은 어린 나이에 홀로 외국의 대학에 다녔다. 배우러 떠났다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강단에 서는 일뿐 아니더라도 삼촌은 누구에게든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다.

삼촌이 시골집에 들르는 날이면, 할머니 집의 뒷마루에는 동네 꼬맹이들이

두루 모여앉았다. 과란 지붕집 교수 아들이 내려왔으니 뭐 하나라도 배워오라며 부모들이 등을 떠민 것이다. 앞니가 없는 꼬마들이 참외 너덧 개가 담긴 검은 봉다리를 들고 할머니에게 꾸벅 허리를 숙였다.

늘어난 러닝만 걸친 아이들 사이에서도 삼촌은 꼭 멀쑥하게 빼입었다. 장소가 어디든 학생이 누구든, 선생은 그 마음가짐을 한결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촌은 아주 많은 것을 말하곤 했다. 그중 유독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날도 그랬다. 할머니는 수박을 썰어 뒷마루에 앉은 아이들의 입에 물려주었다. 나 역시 그사이에 앉아 마당에 수박씨를 뺏고 있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우주를 말하는 삼촌의 목소리를 즐거움으로 떨렸다. 글도 제대로 떼지 못한 조무래기들을 상대로도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못 견디게 행복해보였다. 그만큼 우주와 그를 구성한 신비를 사랑했다.

삼촌의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 나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게워냈다. 나는 두려웠다. 삼촌이 내게 말해준 모든 신비가 내게는 두렵기만 했다. 허끝에 고이는 시큼함 때문에 눈물이 났다. 삼촌의 품에 안겨 무수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물었다. 정말 이 우주엔 우리밖에 없어? 작은 지구의 망가진 질서가, 모든 우주의 무한한 질서로 남는 걸까?

귀엽고도 멍청한 어린 마음은 참으로 쓸모없는 걱정이었다. 삼촌은 이 사실을 나보다 먼저 알았다. 한때 YJ의 연구원이었던 삼촌은 회사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났다. 아주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왔을 때는 반쯤 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연구 도중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뇌 신경이 망가졌다고 했다. 그들은 충분한 보상과 의료 지원을 약속했고 매달 삼촌을 돌볼 의료진을 보냈다. 월초가 다가오면, 부엌에는 삼촌 몫의 약이 쌓였다. 할머니는 그 약을 먹어야만 삼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었다.

얼마 전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삼촌은 머리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조항을 어겨 페널티를 받은 것이었다. 회사의 기밀을 발설하려 했거나 그 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매 끼니 먹던 약은 뇌의 활동을 느리게 만들었고 가벼운 발작을 일으켰으며, 삼촌이 자신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진실을 알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나는 삼촌이 하던 일을 이어받았다. 삼촌을 망친 계약서에 나 또한 서약했다. 영혼을 걸어서라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할머니는 엄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엄마를 찾으면 할머니는 내 발바닥을 때렸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이었음에도 대문 앞에는 담배꽂초가 많았다.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부정한 여자라 했다. 그때는 부정하다는 뜻을 알지 못했다. 나는 취해서 떠들어대는 술꾼들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을 물었고, 식은 아궁이를 뒤지던 아버지는 부지깽이로 나를 때렸다. 비명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눈 쌓인 도로에도 아버지의 발자국은 없었다.

기억 속의 엄마는 길게 내려 묶은 머리칼이 고운 사람이었다. 멀리서도 검은 머리카락이 예뻐다. 내가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면, 그대로 들어 올려 공중에서 빙그르 돌려주곤 했다. 겨드랑이를 잡아주는 단단한 손과 공기 속을 나풀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던 엄마의 웃음소리. 그런 엄마의 고운 머리칼을 잡아챘던 손. 엄마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커다란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에 걸어차였고, 찢기는 비명이 들렸다. 그것이 엄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다.

어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기보단, 듣지 않았다. 나는 어렸고 힘이 없었으니까. 엄마의 머리칼을 질가루처럼 뜯어 받기던 손은 사당 나무 앞에서 동네의 가장 큰 어르신과 악수를 했다. 내가 울며 달려가 그의 다리를 깨물었고, 바로 다음 순간 논두렁에 처박혔다. 할머니는 씩씩거리는 그로부터 나를 끌어안았지만, 나를 위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봄은 시작되고 있었다.

해저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기회의 땅이다. 나약한 인간의 몸은 불과 100m 아래의 바다에조차 닿지 못한다. 지구의 칠 할을 차지하고서도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신비로운 땅. 그곳에선 지상에서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일이 많다.

낮선 생명체에 관한 연구는 삼촌 대에 이르러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먼바다에서 불어온 태풍이 지났던 어느 여름날, 해변가에 실려 온 하나의 손이 그 도화선을 그었다.

어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의사체라고 생각했다. 툼툼이 뜯어먹힌 살점은 남은 것이 별로 없었고, 형체만 간신히 남은 손가락뼈는 상상했다. 한평생을 바다와 보냈으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으나 역시 썩 기꺼운 기분은 아니었다. 때문에 어부는 가까이 다가가 볼 생각도 않고 서둘러 그것을 지역 경찰에게 알렸다. 순경은 추운 날씨에 점퍼를 여미며 해변에 도착했다. 죽을 날도 지지리 못 고르지. 투덜거리던 순경은 어부가 덮어둔 방수포를 벗기고 조각난 손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이것이 평범한 사람의 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여러 조각의 뼈가 연골과 근육으로 연결된 인간의 것과 달리, 이 신원불명의 시체는 온전하게 하나로 연결된 뼈가 마치 고무처럼 부드럽고 유연했다. 물고기의 뼈인가? 순경은 추웠고, 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흥미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직무대로 흠어진 조각을 담아 보건소에 넘길 뿐이었다. 보건소장은 직감했다. 검은 가방 속에 담긴 것은 인간도 물고기도 아니었다. 이는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었고, 한낱 시골뜨기 의사인 자신이 상상도 못 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만약 이 의사가 조금만 더 큰 야망과 욕심을 가졌다면, 미지의 생물은 뒷마당 창고를 개조한 의사의 서재에서 그대로 썩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주제를 알았다. 자신에게는 이 생명체를 파헤쳐 그 신비로운 비밀을 알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의사에게 살아온 세월을 바탕으로 한 직감과 뜬구름같은 풍문 사이에서 진실을 알아보는 직관이 있었다.

태평양 인근 해저에서 지금껏 지구에서 발견할 수 없던 낯선 전과가 발견된 것이 그 무렵이었다. 신약 개발의 벽에 부딪힌 YJ가 미지의 생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또한, 그즈음이었다.

삼촌을 필두로 한 연구팀은 낯선 전과의 근원지를 태평양에 자리한 마리아나 해구 인근으로 특정했다. 깊디깊은 해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압력이 작용하며 빛조차 새어들지 않는 바다의 밑바닥. 그곳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일그러짐. 지구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낯선 전자의 파동. 그들은 연구의 성과에 흥분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놀라게 된 것은 어느 해안 마을에서 발견된 기묘한 사체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부패하고 부식된 사체의 일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곧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다. 이 생명체는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물이 아니었다. 탄소는 고사하고 지구를 조성한 환경과는 전혀 유사점을 찾을 수 없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YJ는 그 낯선 생명에게서 거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막대한 돈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칠 년 만에 손 한쪽은 시신 다섯 구와 두 개 체로 늘었다.

처음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해저의 생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해저임을 고려하더라도 그를 구성한 물질이 너무도 지구의 환경과 달랐다. 다음 가설은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유전자 조작 생명체라는 것이었다. 이는 위의 것보다 빠르게 기각되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였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야 하나의 가설이 대두되었다. 어쩌면 깊은 해구의 더욱 깊은 어느 곳에서는, 아주아주 심대한 압력과 화산활동의 열로 인해 공간에 변형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그 변형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의 길을 이었고, 그 통로를 통해 무언가 오갈 수 있었다고. 해저의 웜홀. 그런 가설이 못 이기듯, 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왔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 발을 들일 무렵 두 개체는 일곱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 즈음엔 그들이 외계에서 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체. 그들의 생김새, 신체를 구성한 물질, 호흡하고 양분을 섭취하는 방법마저 모든 것이 달랐다. 높은 압력에서 사는 생명답게 그 몸은 유연했고 부드러웠다. 머리와 몸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어류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몸통 부분에 인간의 손과 유사한 집게가 네 개 달려 있다. 앞의 두 개는 보다 정교한 일에 걸맞게 근육이 발달했고, 뒤엎것은 유체 속을 이동하기 편하도록 길쭉하고 넓었다. 그를 따 이름이 붙여졌다. 테트라마노(tetramanos). 네 개의 손을 가진 생명체라는 뜻이었다.

그들에게서 이 작은 행성에선 얻지 못할 수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지구라는 한계 너머에 있던 것이 목전에 디밀어졌다. 연구팀은 그들에게서 인류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 한정되고 고립된 지구가 아닌 더 넓은 우주로의 가능성을.

나 또한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느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인류가 혼자가 아니라는 가능성. 가능성이자 현실. 내게는 이것이 내 평생을 끈질기게 적셔왔던 해묵은 감정을 해결해줄 동아줄처럼 보였다. 그 동아줄의 뿌리가 얼마나 가냘픈 기둥에 매여있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할머니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내를 잃고 제 자식을 죽일 뻔하고 사라진 맏아들, 어릴 적 천재라 불렸지만 정신을 놓아버린 작은 아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소한 걱정들.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삼촌이 발작을 일으키는 날도, 그러지 않는 날도 삼촌이 불쌍하다며 울었다.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가겠다고 선언하자 또 다시 눈물을 떨구셨다. 아이고, 어찌려고 그러냐. 너도 네 아버지, 삼촌 꼴 나려고 그러냐. 네 아버지 학교 다닐 적에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소문나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봐라. 제마누라 하나 건사 못하고 부모 자식마저 버리고 사라져서,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네 애비 꼴을 봐. 아님 너도 네 삼촌처럼 미치광이가 되려고 그러냐. 무식해도 좋다. 그냥 살아라, 제발. 제발 너라도 살아.. 나는 우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떠났다. 엄마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떠나고, 삼촌이 미쳐버린 이후로 나는 언제나 떠나고만 싶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가족으로부터 배웠다.

삼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보나 마나 반대할 것이 뻔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나는 내 길을 찾아야 했다. 숨통을 틀어준 이 지독한 외로움을 떨칠 수 있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했다.

흔히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랑은 학습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 자신으로부터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아닌 너를 위할 수 있다. 필요로 묶인 개인들이 다른 이의 필요를 자신의 것만큼이나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본보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내가 본 인류는 쓸만한 본보기가 아니었다. 인간이란 좋은, 이 무한한 우주에서 점처럼 희미할 뿐인데 그 작은 일부를 다시 성별로, 인종으로, 종교로 구분해버린다. 서로를 품에 안고 아껴주기에라도 짧은 시간을 살면서 상대를 할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산다. 피해자를 겁박하고 가해자



가 멧멧하게 고개를 쳐들고 대낮을 확보하는 현실을 환멸했다. 나는 나조차도 용서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는 그 곁을 지키지 못했다. 할머니의 병이 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일이 너무 바빴다. 내일, 또 내일로 미루던 날은 결국 영원히 닿을 수 없이 멀어져 버렸다.

세상이 미워질수록, 내가 미워질수록 생각은 깊어졌다. 인간은 어떻게 해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종족인가? 이 우주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지성체가 인간뿐이라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은 어디에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일까? 끔찍이도 두려운 말이었다. 무한히 거대할 뿐인 우주에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 존재할 수 없다니. 그 짧은 시간 동안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니.

본보기가, 또 다른 표상의 가능성이 필요했다. 어리석은 인간이 자멸하더라도 그조차 안쓰럽게 여겨 보듬어줄 존재를 찾고자 했다. 그런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두려움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삼촌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의 어색함을 잊기 위한 가벼운 주제로. 그들은 연구대상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만 연구원들을 비웃었다. 실험쥐가 불쌍하면 밥벌이를 바꿔야지, 안 그래?

살아있는 첫 테트라마노를 포획할 수 있었던 것은 YJ가 들인 지대한 노력과 우연의 결과였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한다는 것은, 조각난 시체를 연구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아직 테트라마노의 이름이 붙기도 전, YJ가 준비한 우리는 그 육체를 감당하지 못했다. 몸은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부풀어 올랐다. 끝내 팽창한 몸은 바닥에 축 늘어졌고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부터이다. 첫 개체를 포획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오

년이였다. 그마저도 수십 명의 연구원이 밤낮을 지새운 노력과 우연이 빚어낸 기적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다음 두 번째 개체를 포획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육 개월이었다. 단 육 개월.

두 번째 개체는 보관실에 안치된 제 동족의 곁에서 발견되었다. 포획,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이다. 토막 나 표본으로 박제된 동족 앞에서 슬피 우는 녀석을 붙잡은 것에 포획이란 단어는, 부끄러우리만치 거창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현시대의 인류를 웃도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 발로 보관실에 숨어들었던 녀석은 지구의 환경에 완벽히 대응한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YJ의 기술력을 쏟아부었던 케이지로도 구현하지 못했던 고압과 낮은 조성의 공기. 보호복의 완전한 원리는 알아낼 수 없었지만, 그를 토대로 한 새로운 우리를 만드는 것은 가능했다.

위와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더 일어나고, 세 번의 실패와 다섯 개체를 잃은 후의 일이었다.

외계의 전파가 감지되는 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졌다. 첫 토막이 발견되던 때엔 한 달. 내가 연구팀에 합류할 즈음엔 마지막 전파가 감지된 지 이미 사 년의 시간이 흘러있었다. 연구팀은 이것이 통로의 소멸을 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애초에 그 통로의 원리를 알지 못하니, 언제 사라지더라도 이상할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정체 모를 외계로의 통로를 차단하여 그들의 침략을 막았다는 쪽과 아직 그들 세계에서 더 얻어낼 것이 남아있다는 쪽. 둘의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무의미한 탁상공론 따위는 통로가 여닫히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없었는데도 말이다.

테트라마노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했다. 그들은 고래와 비슷하지

만 그보다 훨씬 섬세한 초음파를 발생시켰다. 인간은 들을 수조차 없는 고주파는 가장 처음 발견된 외계의 파장들 속에 섞였던 것 중 하나로 밝혀졌다.

그들 종족이 의도치 않더라도 만들어내는 특수한 파장이라는 의견과 그들의 언어일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다. 수년간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후자에 힘이 실렸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파장이 반복됐다. 실험을 당할 때, 우리에서 따로 떼어놓을 때는 낮은 파장을 방출했다. 실제로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모니터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어찌지 구슬픈 느낌이었다. 특히 우리에서 사망자가 나올 때는 그래프가 하나같이 땅을 기었다. 이런 날이면 종종 곡선이 반대 방향으로 극히 치닫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이 벽에 몸을 던지며 날뛰는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을 분노로 정의했다.

그들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이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나보다 빨랐다. 그들 중 몇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팀을 나갔고,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혹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남았다. 내게도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으나 선불리 선택할 수 없었다. 애초에 그들과 나는 원했던 것이 달랐다. 내가 원했던 것은 가능성이었다. 표상의 가능성을 원했다. 인류에게 자애와 박애를 가르칠 새로운 질서의 강림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마주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인류를 웃도는 기술력을 갖고도 불나방처럼 몸을 던지는 외계인. 그들은 몇 번이고 붙잡힌 동족을 위해 뛰어 들었고, 또 몇 번은 성공할 뻔도 했었다. 그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동족을 납치한 외계 종족을 용서하지 않았다. 내가 꿈꿨던 본보기가 아니었다.

그제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찾고자 했던 것. 어떤 잘못도 포용하며 사랑을 베푸는 존재. 그런 것이 신 외에 존재하기나 할까?

인류에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반복되는 역사와 차별과 혐오가 나로부터 인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다. 신을 믿어야 했을까. 어리석은 인간을 포용할 신을 찾아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행복했을까? 어찌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는 사람 하나는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와 삼촌은? 우리 엄마는? 깨어진 구슬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내가 진실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지. 정말 꿈꿨던 것은. 더는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했다. 외계인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누구도 상처입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는 그 소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밖의 종족은 인간과 다르리라 믿었던 근거조차 없었다. 그들도 같았다. 손안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만큼의 기술력이 단지 지식욕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느끼는 일 없이 가능했을까. 망설임 없이 타종족을 쏘던 그들의 칼날이 움직인 것이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현실을 외면하기에 급급해 내가 사는 세상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멍청하게 있지도 않은 세상에서 강립할 영웅만을 찾으려 했다.

이제와서 깨달음을 운운하지는 않으려 한다. 그저 이 넓은 우주에서 또 다른 생명체와 조우할 확률, 그중 박애주의와 이타심으로 점철된 외계인이 존재할 확률을 다시 고려해 본 것이다. 나는 이것보다는 높은 확률에 배팅하기로 했다. 인류가 안쪽에서부터 다져질 수 있다고 믿으려 한다. 앞선 것과 확률이 그다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노력 여하로 변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나는 용서할 것이다.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기로 했다. 내가 겪었던 것, 저지른 일, 느꼈던 감정.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나를 용서하자. 망각도 체념도 아닌 용서로 나와 화해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나씩, 한 사람씩 용서하다 보면 언젠가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내가 하나의 본보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인간은 밖으로 나설 준비가 안 되었다. 바깥과 만나기 전에 스스로를 보듬을 줄 알아야 한

다. 만약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인간과 다르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라면, 그런 이들의 만남은 언제나 슬픔과 혼돈만을 가져온다.

테트라마노는 아마 동족이 이곳에 잡혀있는 한 계속해서 날아들 것이다. 언젠간 성공적으로 동족을 구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 그전에 그들이 동족의 구출이 아닌 복수를 선택하기라도 한다면? 그때까지 반복될 악순환을 나는 두고만 봐야 할까?

일을 치를 날은 워홀이 열릴 거라 예정된 날짜의 닷새 전으로 정했다. 예정일 전후로 연구소는 붐빌 테지만, 닷새 전이라면 직후의 철야에 대비한 연구원들이 휴식을 가질 것이다. 그때를 노려야 했다. 나는 내 선택을 믿어.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마음속 각오는 단단한 모양으로 떠올랐다.

평소 안면이 익은 당직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건네고 보안실까지 숨어들었다. 세기의 천재라 불렸던 삼촌과 피를 나눈 내게 보안 프로그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마지막 보안 코드를 입력할 즈음 전력이 차단되어 불이 꺼졌다. 들켰다. 컴컴한 곳에서 녹색의 비상등만 밝았다. 마지막 코드만 입력하면 됐는데. 꺼진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려쳤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서 무의미한 분풀이를 하느니 달리기로 했다. 이미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은 해제해뒀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해치 개방. 테트라마노를 가둔 우리의 해치는 수동으로도 조작성이 가능했다. 나는 최후의 기회를 향해 달려야 했다.

“거기 누구십니까. 신원을 밝히고 복도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나 스스로를 천재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몸을 쓰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었다. 내가 잘하는 일은 책상에서 펜이나 굴리는 일이지, 불 꺼진 복도에서 탁한 조명에 의지해 추격을 피해 달리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보안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괴로웠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까지인가. 체력 탓에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몹시도 한심해 보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벽에 기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쪽이에요.”

몇 번 본 적 있는 연구실의 청소부였다. 그는 청소차의 덮개를 열더니 내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나를 옥여넣었다. 그 후 경비원의 지시에 따르는 척하며 나를 연구실 앞에 내려주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 것인지 그는 알고 있던 것일까? 대답은 아직도 듣지 못했지만, 점멸하는 초록색 조명 아래서 어렴풋이 그의 미소를 봤던 것도 같았다. 감사 인사를 건넬 시간도 없이 달려야 했다.

연구실 안에는 비상경보를 듣고 모인 동료 연구원들과 경비원이 있었다. 그들을 피해 해치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말이다. 나는 문을 걸어잠과 동시에 청소차에서 주운 소독용 알코올을 메인 컴퓨터로 던졌다. 모든 정보가 백업돼있는 곳으로, 저 컴퓨터엔 여지껏 테트라마노에 대해 연구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했다. 그러니 그 위로 불꽃이 지펴진 라이터가 던져지자 모두의 이목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

“안돼! 디스크라도 건져!”

선배 연구원이 절규하며 소리쳤고 주의가 분산됐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던졌고 그들이 에워싸고 있던 해치의 레버에 닿았다.

레버를 당기기 직전 수조 속의 탁한 눈이 보였다. 틀림없이 이미 퇴화해 형태만 남은 눈구멍이었을 테지만, 그 순간은 녀석도 나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다는 인사였을지 모른다. 혹은 그들의 목숨이 달린 불확실한 일을 멋대로 저지른 나를 탓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쨌면 그저 무의미한 눈맞춤 뿐일지도 모르지. 내가 그 뜻을 아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레버를 당겼고, 해치가 열렸고, 그들은 몰아치는 물살을 따라 드넓고 깊은 바다로 떠나버렸으니까. 그들만의 질서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테니까.